

2025_winter 통권 1090호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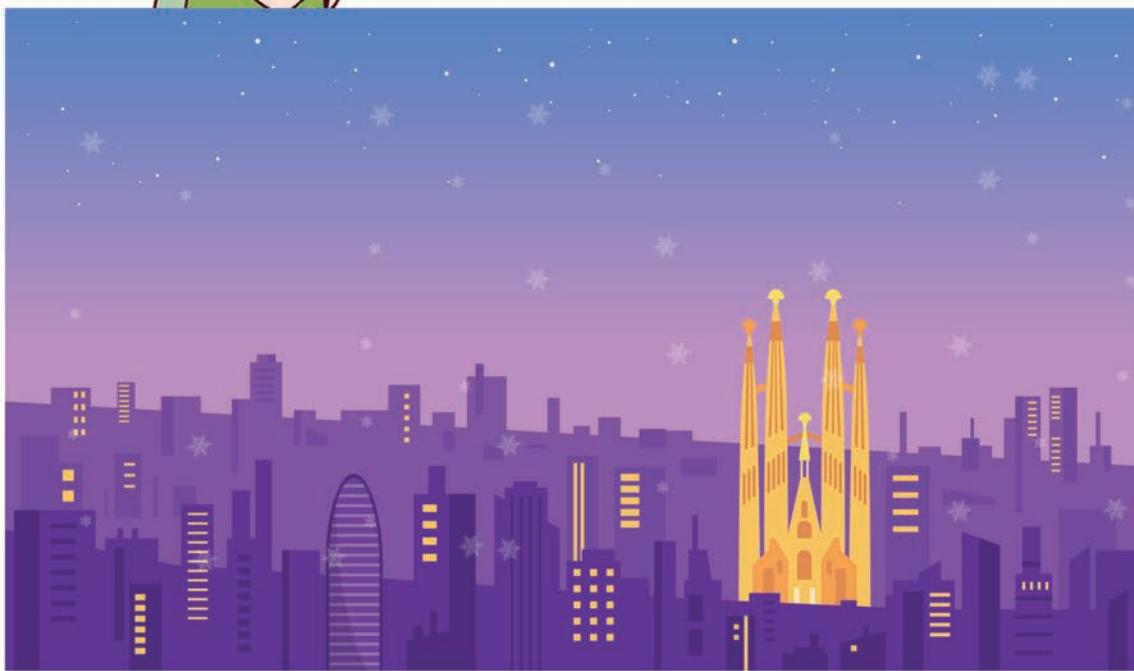
두근두근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2025_winter

통권 1090호

두근
두근
두근
두근



2025년 희년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도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contents

2025_winter
통권 1090호

- 02 2025년 희년 기도문
- 03 목차
- 04 말씀읽기 · 말씀 다지기

성경 © 한국천주교종교협의회

- 28 티노생각
- 30 탱이와 아치
- 32 영어 오디오북
- 33 있어보이는 우리말
- 34 오! 가.작.통
- 36 청년대회란?
- 37 희년이란?
- 38 우리 성지 프사
- 40 성지 부루마블

- 42 보아라찾아라환호하라
- 44 우리들 이야기
- 48 희망의 말씀 순례



말씀 읽기

12월 7일 대림 제2주일 마태 3,1-12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하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말씀 다지기

대림 제2주일 (마태 3,1-12)

1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는 누구일까요?

- ① 아브라함
- ② 모세
- ③ 세례자 요한
- ④ 베드로

2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모두 고르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과 ()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① 불
- ② 물
- ③ 비둘기
- ④ 성령

3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 하라고 외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기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기로 해요. 내가 가장 고치고 싶은 나의 버릇이나 안 좋은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보아요.



말씀 읽기

12월 14일 대림 제3주일 마태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야?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니?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인가?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니? 예언자인가?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말씀 다지기

대림 제3주일 (마태 11, 2-11)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눈먼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 ②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게 될 것이다.
- ③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 ④ 부유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나.

2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세례사 요한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을 찾아 적어보세요.

3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어떠한 자선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선을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아요.



말씀 읽기

12월 21일 대림 제4주일 마태 1, 1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임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경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말씀 다지기

대림 제4주일 (마태 1, 18-24)

1 오늘 복음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는 이유와 파혼하려는 요셉의 꿈에 누가 나타났는지 바르게 적힌 것을 고르세요.

- ① 마리아에게 복수하기 위해 / 세례자 요한
- ②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 주님의 천사
- ③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서 / 예언자
- ④ 혼자 살고 싶어서 / 파라오

2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어떤 뜻인지 써보세요.

3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나요? 하느님을 체험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기

12월 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마태 2.13-15.19-23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 다지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마태 2,13-15,19-23)

1

오늘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입니다. 이날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어떤 축일일까요?

- ①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 ② 주님 공현 대축일
- ③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④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

꿈에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 구절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일어나 ()와 그 ()를 데리고 ()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3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성가정 축일을 보내며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조부모님)을 떠올려 보며 가족 안에서 느꼈던 감사, 사랑의 마음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기

1월 4일 주님 공현 대축일 마태 2, 1-12

1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야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야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야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말씀 다지기

주님 공현 대축일 (마태 2,1-12)

1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다음 중 공현의 뜻으로 알맞는 것은?

- ① 공적으로 나타나심, 모든 이에게 나타나신 주님
- ② 빈 곳에 나타나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신 주님
- ③ 빈 화살 같으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화살 같이 쏘시는 주님
- ④ 공적으로 화살 같으심, 사람들에게 말씀을 화살 같이 쏘시는 주님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유다 땅 ○○○○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3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 별은 주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별들이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늘 볼 수 있는데, 마음에 있는 별은 얼마나 반짝이고 있을까요? 주님께 대한 마음과 간절함 등 나의 감정들을 편지로 표현해 봅시다.



말씀 읽기

1월 11일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13-17

13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말씀 다지기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13-17)

1 오늘은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음 중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경인물 요한을 찾아 보세요.

- ① 십자가의 요한
- ② 세례자 요한
- ③ 사도 요한
- ④ 요한 크리소스토모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예수님께서는 ○○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 내 마음에 드는 ○○이다.”

3 복음에서 주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례를 받았나요? 받았으면 세례 받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기

1월 18일 연중 제2주일 요한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2주일 (요한 1.29-34)

- 1** 다음 ○○, ○○○,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짹지은 것은?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 ① 지옥, 어린양, 뒷
- ② 지옥, 어른양, 앞
- ③ 세상, 어린양, 앞
- ④ 세상, 어른양, 뒷

- 2** 복음을 읽고, 다음 ○, ○○,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3개)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께서 ○○○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 3** 요한은 주님께 세례를 주며 고백합니다. 요한의 고백과 증언처럼 우리도 요한과 같은 겸손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적어봅시다.



말씀 읽기

1월 25일 연중 제3주일 마태 4,12-17

12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이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3주일 (마태 4, 12-17)

1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짹지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을 떠나 ()과 ()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① 갈릴래아, 나자렛, 즈불룬, 납탈리
- ② 니네베, 납탈리, 즈불룬, 갈릴래아
- ③ 나자렛, 납탈리, 즈불룬, 갈릴래아
- ④ 나자렛, 즈불룬, 납탈리, 이스라엘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을 보았다. ○○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3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회개의 체험이 있나요?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기

2월 1일 연중 제4주일 마태 5, 1-12

그때에 1 예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4주일 (마태 5, 1-12-)

1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나요?

- ① 바다 위
- ② 산 위
- ③ 성전 안
- ④ 들판

2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_____)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3 나에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오늘의 복음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싶은가요?



말씀 읽기

2월 8일 연중 제5주일 마태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힘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친양하게 하여라.”





말씀 다지기

연중 제5주일 (마태 5, 13-16)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두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2 빙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_____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3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나 친구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말씀 읽기

2월 15일 연중 제6주일 마태 5_20-22_27-28_33-34_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6주일 (마태 5.20-22ㄴ.27-28.33-34ㄴ.37)

- 1**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_____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 2** 복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너희의 _____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_____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5.20)

- ① 의로움 ② 완고함 ③ 예물 ④ 기도

- 3** 겉으로는 규칙을 지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은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언제였는지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2월 22일 사순 제1주일 마태 4, 1-11

1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말씀 다지기

사순 제1주일 (마태 4,1-11)

1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번의 유혹을 받으셨나요?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2 (마태 4,4)의 말씀을 찾아 적어보아요.

3 예수님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나는 힘들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나요?

양콤한(*^_^*) TINO 생각

나 스스로에게 박수 치는 게
상대방을 위해 박수를 치는 것보다 어렵죠.



나에게 박수

진짜 원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양금] 티노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날

내가 좋아하는 내모습

1. 신중함 ...
- 2.
- 3.

당이와 아치

글/그림_이윤식 마르코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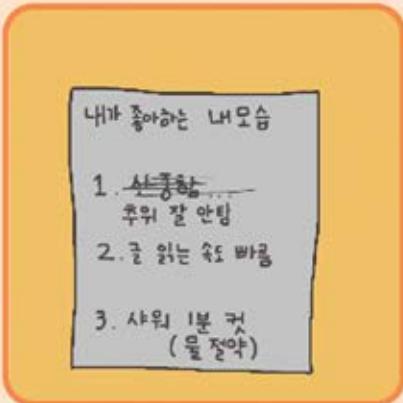
⑧



⑨



⑩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거창 해야 할

필요가 있음까요?.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나요?

#글쓴이의 경우 눈싸움 잘함



영어오디오북

글: 감사랑

The Concluding Rites

마침예식은 강복과 파견으로 이뤄져 있다.
 강복을 받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증거하기 위해 파견되어진다.

+ The Lord be with you.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And with your spirit.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May almighty God bless you: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Amen.
 아멘

+ Go forth. the Mass is ended.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 Thanks be to God.
 하느님 감사합니다.



ANKONG_OUREPAN



있어보이는

우리 말

글 : 어흥

두레판 친구들 안녕?

우리는 대림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대림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 기도와 자선을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배워볼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보아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써보며,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 보아요.

“Ecce virgo concipiet et pariet filium
et vocabunt nomen eius Emmanuel.”

에체 빌고 콘치피엣 에트 파리엣 필리움

에트 보카분트 노멘 에이우스 엠마누엘

“Ecce virgo concipiet et pariet filium
et vocabunt nomen eius Emmanuel.”

(

)

“보아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글 : 김진심

춥다... 뜨끈한 오뎅(어묵의 일본식 표현)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이야. 분식으로 조합을 갖춰서 먹는 오뎅 국물은 늘 틀리지 않은 선택이지.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추울 때 덜덜 떨면서 마시는 오뎅 국물이 가장 맛있더라고.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사 마치고 성당 밖에서 사 먹는 오뎅 국물!

중·고등부 학생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바쁜 날 같아. 몇 주 동안 준비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고, 가끔이지만 미사 전례에 참여도 하고, 미사 마치면 밖에서 오뎅도 팔아야 하고, 다 끝나면 신부님께 허락받고 성당 교육관에서 간식 먹으며 밤새 마피아도 잡고...
(꽤나 건 전한 편...).

그런 바쁜 날 가장 재밌던 것은 오뎅 팔고, 나눠 먹는 일이었어. 그리고 보면 성당에서는 가끔씩 원가를 먹는 날이 있었어. 부활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탄절, 신부님 축일 등등 성당에서 기념 할만한 날에는 늘 음식을 나눠 먹었던 거 같아. 그래서 성당 안 보다도 성당 밖이 더 바빴어. 삼촌들은 불피우고, 이모들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래서 성당 주방이 늘 시끌시끌하고, 마당에는 달큰한 음식 냄새가 나는 날은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거 같아.

어른들께 들어보면,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더라. 가난해서 먹을 게 부족했을 때도, 잔치가 필요한 중요한 날에는 뭐라도 준비해서 서로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 지금처럼 풍족해진 시절이 부럽지 않게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1814년 조선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해(『조선왕조실록』 참고). 그때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산에 숨어 살 때였어. 조선의 어떤 계층보다 가난하게 살 때였지.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절에도, 교우촌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한국천주교회사』 참고). 누구 하나 혼자 배부르지 않게, 서로 잘 나눴기 때문이겠지.

어쩌면 그때부터가 아닐까? 성당에 모여 같이 나눠 먹기 시작한 게. 그때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눴겠지? 지금은 같이 즐겁기 위해서 나누겠고? 성당 밥에는 아주 오~래 되고 진~한 나눔의 전통이 서려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남기지도, 투정 부리지도 말아. ㅎ

Korea Youth Outreach



친구들 잘 지내고들 있나요?
그동안 세계 청년대회(WYD), 아시아 청년대회(AYD)에 이어
한국 청년대회(KYD)에 관해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청년대회(KYD)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세계 청년대회(WYD) 아시아 청년대회(AYD)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행사는 거의 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하려면 상당한
경비 부담을 피할 수 없었죠. 이에 전국 청년담당 신부들이 모여서
저렴한 경비로 세계 청년대회(WYD)나 아시아 청년대회(AYD)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국 청년대회(KYD)를 준비하여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2007.08.18~21일 제주도에서 시작으로
2010.08.12~15일 의정부
2014.08.14~17일 대전 (이때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와 동시 열림)
2018.08.11~15일 서울에서 제4회 대회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짧은이가 한곳에 모이는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이
었죠. 비록 세계 짧은이가 다 모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 안에서
좋은 신앙 체험이 될 수 있는 기회이며 시간들입니다.

두레판 친구들도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고, 지금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희년의 마지막 모습은 '다시 걷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비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Q1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희년을 살아간다는 건, 하느님 안에서 '다시 나다워지는 용기'를 갖는 것而已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자주 잊어버려요.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지!", "이렇게 살아야 남들처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하느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내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희년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에요.

Q2 나의 희년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희년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하느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희년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할 때, 그곳이 곧 하느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한 번 다짐했는데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희년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나는 어떤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희년을 이어가게 돼요. 희년은 결국 다시 사랑하기 위해, 다시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절대 혼자 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느님께서 "괜찮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며 손 내밀고 계시니까요.

호야 신부님's
질문 하나!

"여러분의 희년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빛깔로 자라고 싶나요?"

#우리성지 프로필

#세번째 이야기

#안동 교구

#문경 진안리 성지

#대신 가드림

#팔로우, 좋아요, 알림설정

#사진, 글 : 아리



PROFILE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선종지
#천주교 박해
#시복시성

#위치: 36919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0



글 : 안실장

부루마불 성지

1

바르셀로나 :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듯,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랍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에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안토니오 가우디의 깊은 신앙이 숨어 있어요.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느님이 만든 선이다”라고 믿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비롯한 그의 모든 건축물에서 직선을 배제하고 곡선을 사용한 것은 하느님을 따르려는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신앙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곳이에요. 성당의 이름 자체가 “성스러운 가족” 즉 성가정(예수, 마리아, 요셉)을 의미하며, 성경 전체를 담은 3개의 파사드(면)는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담고 있으며, 가우디 생전 유일하게 완성된 탄생의 파사드

예수님의 수난과 희생을 표현한 수난의 파사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인류의 구원을 담을 예정인 영광의 파사드



연중 따뜻한 기후, 풍요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태양의 나라

: 스페인



스페인 Spain



5,059만 7,828.1ha



4,782만 8,382명



특히 수난의 파사드에는 마방진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마방진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33,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나이를 의미 한답니다. 성당 전체가 성경 이야기를 담은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우디는 젊은 시절부터 이 성당 건축에 참여하여, 만년에는 거의 성직자처럼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는 이웃에게 냉소를 받으면서도 평생을 이 건축물에 바쳤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우디의 종교적 신념, 자연에 대한 경외, 그리고 최고의 건축 기술이 하나된 거대한 상징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우디는 생애 마지막 말에 “야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외쳤다고 해요. 깊은 신앙심과 건축을 통한 영적 영향력으로 2025년 4월에 “가경자”로 인정 받기도 했답니다.

가우디는 깊은 신앙을 건축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두레판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함께 1분 순례

GO!

1분 순례

다른 그림 찾기



ANDONG_DUREPAN

10/12 “2027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봉사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n

다른 곳 5군데를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9월 7일 중고등부 회장단 하반기 모임이 있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르1,15)라는 주제로 5개 본당 중고등부 임원들과 봉사자들 총 25명이 명예목 성지와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최양업 신부님께서 세례성사를 주신 명예목 성지에서 미사도 드리고, 세례서약갱신을 함께 하며 신앙을 되새기는 체험을 하였답니다.

정답을 찾아 사진을 찍어
인별그램에 응모해주세요~!

비스킷 / 거인 / 마법모자 / 운동화 한짝 / 빛



희망의 순례자들



하
망
동
성
당



봉하마을, 우포늪

지난 여름, 하망동성당 친구들과 신양학교로 봉하마을이랑 우포늪에 다녀왔어요!

날씨가 진짜 더웠는데도 다들 신나게 놀았어요.

봉하마을에서는 대통령님 묘역도 가보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포늪은 텁방하면서 생태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평소에 몰랐던 것들도 알게 돼서 신기했어요.

더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어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경주 성동성당

목성동 성당



목성동 성당 친구들은 지난 겨울, 100년이 다 되어가는 경주 성동성당을 순례했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성당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답니다.

성당 곳곳을 둘러보며 예전 신앙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례를 마친 뒤에는 루지 체험과 황리단길을 거닐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도 보냈답니다!



예천 성당



희망의 순례자들

여우목, 마원, 진안리성지



지난 9월 13일 예천성당 중고등부 친구들은 운경에 위치한 성지 3곳을 다녀왔습니다.
여우목, 마원, 진안리성지에서 순교자성당 기도를 바치고 성지 인증 스텁프도 찍으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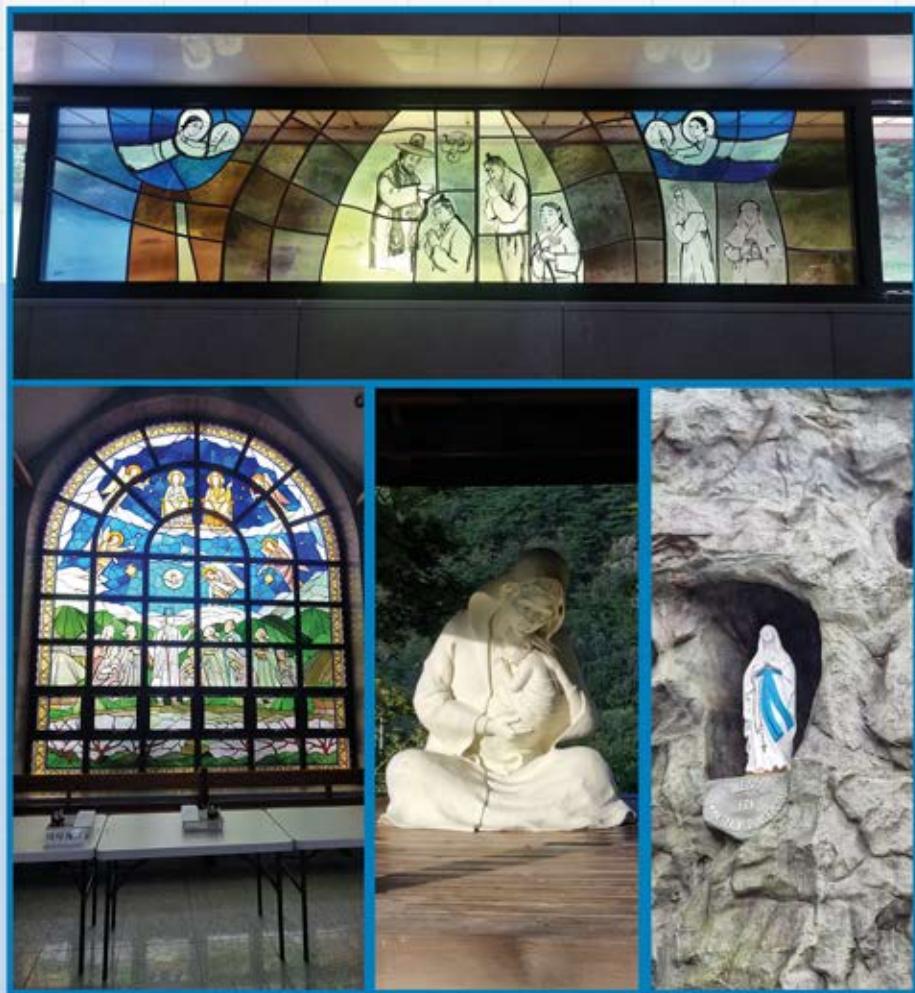
태화동 성당

저희 태화동 성당 주일학교 학생은 많지 않고 친구들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 함께 갈 수는 없어도 부모님과 최양업 신부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보기로 했어요.

해미, 갈매못 성지 다녀 온 친구,

속스리워 자신의 얼굴이 사진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성지를 다녀 온 친구도 있어요.

비록 친구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사랑도 깊어지고 최양업 신부님께서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 청소년 축제

지난 10월 12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약 6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시작을 알리는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발대식과 발대식 미사, 그리고 음악 콘서트가 이어지며 참석자 모두가 일치와 친교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대식은 다가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안동 지역에 널리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레판 친구들 모두 앞으로도 WYD 안동교구대회를 위한 준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려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악과 폭력을 뽑고 허물며, 이기심과 편협함, 증오의 장벽을 없애고 부수어,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는 하느님의 힘을 전하는 일입니다.¹⁾

1) 2024년 11월 24일 제 39차 세계젊은이의 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하신 말씀.

2) 2013년 7월 28일 제 28차 WYD,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말씀의 순례

사랑하는 한국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을
증거 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²⁾



Republic of Korea



Spain

공지사항

찬미 예수님! 두레판 친구들~

2025년, 우리는 '회년'을 지내며 주일학교 안에서 희망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2027년에 열릴 서울 세계청년대회(2027 서울 WYD)를 준비하며, 그 시작을 알리는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축제에도 참여하였지요. 을 한 해,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걸어온 두레판 친구들 모두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안에 성장하고,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

다가오는 2026년에도 두레판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쁜 만남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n

p.s. 함께 글을 나누며 기쁨을 전해주신 필진 분사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두레판 활동("복음 퀴즈, 숨은그림찾기, 다른 그림 찾기") 등을 2026년 1월 14일까지 인증해 주세요. 인증된 친구 중 10명을 뽑아 선물을 증정합니다!

◆ 블 호에 실릴 본당사진을 공모합니다.

본당의 중고등부 행사나 활동사진들을

1월 15일까지 사목국 메일로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안동교구 두레판"

http://www.instagram.com/andong_durepan

#사목국 메일 - sa3119@nate.com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36678 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길 77)